

## 대학시설 장애우 불편 여전 도우미 '나몰라라' ...관심과 배려 절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랑의 학교'인 제주대가 현실적으로 장애학우 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학우들의 고충이 예상된다.

장애학우 도우미 지원서비스는 수업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우를 도울만한 학생을 지정해 일정 기간동안 봉사하게 함으로써 장애학우들에게 학교생활의 도움을 제공하고 도우미 학생들에게 봉사의 보상으로 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우미는 강의 시간, 평가 및 시험기간에 장애학우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필도우미, 수화통역도우미, 노트정리도우미, 강의실간 이동도우미 등의 방법으로 장애학우와 한 몸이 돼 생활한다.

현재 도우미 지원서비스는 학생복지과가 장애학우 도우미 인원을 책정해 각 단과대 행정실에 그 수를 배정한 후 행정실에서 학과로, 학과에서 장애학우에게 전달돼 도움을 요청할 학생을 장애학생 스스로 섭외한다.

이러한 섭외과정에서 장애학우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불편을 더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학우의 경우, 주위의 친구들에게 부탁할 수 있지만 시각·청각 장애학우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 중 수화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 이상 실질적으로 직접 도우미를 구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장애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도우미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장애인인

관대책임위원회를 통해 수화동아리나 봉사동아리 회원 중 도우미를 구하지만 현재 장애인대책임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학우들의 고충은 더욱 크다.

모 학과의 조교는 "도우미를 직접 구하기 어렵다면 구해줄 수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알고 지내던 친한 사람이 하는 게 낫다"며 "학과에서 도우미를 구해보려 했지만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학생이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직전 회장인 정대시(O4 관광경영 졸)동문은 "우리가 장애학우를 위해 하는 일은 도우미를 섭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뿐"이라며 "장애학우에 대한 관심이 줄면서 회원인원이 적어 운영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애학우를 위한 행사 등에 학교 측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학생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타 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대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위원회에서 청각장애학우를 위한 수화통역사를 배정하고 시각장애우, 공학정리 등을 돕는 도우미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제공하는 등 도우미 서비스가 훌륭해 장애학우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복지과 관계자는 "2001년 보건복지부가 '사랑의 학교'로 우리대학을 선정했지만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단계"라며 "장애학우 지원을 시작하지 얼마 안 돼 여건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jye0987@cnu.ac.kr

## '상상초월' 총학생회 어제 출범식

### 총여 출범 이어 단대 학생회도 잇따라

'상상초월' 제37대 총학생회(회장 이승철 경영4) 출범식이 지난 15일 백두관과 한라터 곳곳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은 ▲PC게임대회(카트라이더) ▲VTR상영 ▲동반자 공연 ▲크로우 공연 ▲골든벨 ▲동아리 공연(검도회, 맥택견, 액센트, 크로우) ▲고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승철 총학생회장은 "출범식을 모든 학우들과 함께 하기 위해 많

은 것을 준비했다"며 "우리 총학회가 동반자인 만큼 모든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대동제 행사를 시작으로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총여학생회 ing(회장 유지혜 경제학4, 이하 총여) 출범식이 열렸다. 총여 출범식은 ▲사탕 나눠주기 행사 ▲음료 및 차 시음회 ▲고사 순으로 진행됐다. 유지혜 총여 회장은 "우선 무사히 출범식을 끝낼 수 있어 감사

하다"며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여학생들이 인권보호와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단과대 학생회 출범식은 ▲17일 △경상대 △사법대 △해양과학대 △자연과학대를 시작으로 ▲21일 △생명자원과학대 △공과대 ▲22일 △법정대 ▲23일 △인문대 △의과대 ▲28일 △야간강좌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우정 기자 hotw312@cnu.ac.kr



지난 14일 오전 캠퍼스 옥공밭에서 바라 본 한라산 전경

양호근 기자 journalist@cnu.ac.kr

## 도서구입 예산 늘려야

### 입고 시간 길어 학생들 불만

중앙도서관(관장 윤창훈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하 중도)이 재정 부족과 제주도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학생들의 도서구입 신청에 따른 도서 입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도서구입 신청은 중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고 있지만 도서구입 신청에 대한 홍보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신청 접수에서 도서 입고기간까지 이르면 1개월, 늦으면 2~3개월 걸리고 있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서가 제때 입고되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권정연(가정관리 2)학생은 "지난달에 도서 구입을 신청했던 책이 아직 도서관에 들어오지 않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신학기가 시작되고 수업받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는 제주대가 타지역에 비해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아 신속한 입고가 어렵고, 도내 서점에서 판매되지 않는 도서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형 서점에 요청해 입고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서구입 예산이 타국·공립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다량의 도서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전남대와 충북대의 경우, 학생들의 희망도서 구입 신청 목록을 출력해 시내 대형서점에서 납품을 받아 각각 2주에서 1개월 이내

로 입고가 완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서관 관계자는 "타국·공립대의 도서구입 예산은 평균 6~7억원인데 비해, 제주대는 약 1억5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도서를 구입하고 싶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도서의 양보다는 종의 다양성을 고려해 적은 수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도서구입 예산을 현재보다 대폭 늘리고 학생들의 손에 도서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서구입 시스템 재정비하는 등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지혜 기자 polaris@cnu.ac.kr

## 경찰, 18일 사이버 수사 결과 공개

제주대 총장임명 상정이 3주째 미뤄지는 가운데 제주경찰청은 오는 18일 사이버 수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교수회 대표와 학부위원 대표가 지난 14일 회의를 가져 문답식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교수회는 "오는 18일 경찰청에서 사이버 수사 결과

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회 관계자는 "제주경찰청에서 학교에 찾아와 수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공표했다"고 말했다. 학부위원 측은 "정부가 총장임명 상정안을 미룬 사유를 공문서로 보냈다"며 공문서를 공개했다. 공문서에 따르면 총장임명 상정안은 선출 과정에

서 후보자간 상호비방 등으로 후보자 검증기간이 소요되므로 유보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총무과 관계자는 "공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상정을 유보하는 것 같다"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총장임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호근 기자 journalist@cnu.ac.kr

## 제주대학교 출판부가 만든 책들

대학국어 교재편찬위 / 5,800원  
정치이데올로기와 통일 고성준외 / 4,000원  
한국도시사계의 저속현대 고남욱 / 2,500원  
지방정치와 지방행정 부민근 / 12,000원  
영문학의 원류를 찾아서 양영수 / 10,000원  
법방인의 세계(초판) 김병화 / 7,000원  
러시아 혁명의 해석 한기영외 / 10,000원  
조직행위론 김병국외 / 14,000원  
한국사회의 신중간 계급 김석준 / 10,000원  
전략적응용과 소비자 행동론 황용철 / 18,000원  
원예시설학의 기초지식 장진익 / 15,000원  
영시의 문물론적 이해 강동원 / 9,000원  
제주도의 새 행정 / 15,000원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강현화 / 10,000원  
식물분석 실험 교정남 / 6,000원  
애원동물의 이해 김민수 / 8,000원  
환경과 공해 환경과공해편찬위 / 10,000원  
갈릴레오 고성삼외 / 12,000원  
현대프랑스 정치론 장원석외 / 6,500원  
최소현역학 개론 장진익 / 10,000원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오창영 / 15,000원  
한국현대사회의 탐색과 비평(초판) 김병태 / 8,000원  
실용문법 해설(1) 고경환 / 10,000원  
제주도민과 법학사 서경림외 / 9,000원  
한국지방자치론(초판) 부민근 / 15,000원  
서비스 품질 경영론 고재건 / 13,000원

국제기원 환경론 김희철 / 15,000원  
경제학 방법론 박상수외 / 7,000원  
약용식물학 실험 송창길외 / 8,000원  
제주 조림법 김민수 / 7,000원  
농업경영학 강의 강경선외 역 / 10,000원  
제주도 가족과 편당 김혜숙 / 13,000원  
기초중국어 과외부 / 7,000원  
경제학 개론 박상수외 / 9,000원  
산수문학 연구 손오규 / 12,000원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강현화외 / 15,000원  
농업생산지 조직론 강경선 / 12,000원  
수산업학과 염색제 조작 여인규외 역 / 6,000원  
한국현대사회의 탐색과 비평(개정판) 김병태 / 13,000원  
법방인의 세계(개정판) 김병화 / 11,000원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와 한국의 현대시 문용성 / 18,000원  
청신은 날보고 장홍용 / 10,000원  
행정법 개론(초판) 윤양수 / 20,000원  
한국지방자치론(개정판) 부민근 / 15,000원  
일본정부의 쓰레기 정책 강현화외 / 10,000원  
홍콩발전의 국제정치경제 김진호 / 12,000원  
식품공학(초판) 고경선외 / 10,000원  
제주조림법의 활용 김민수 / 9,000원  
동물행동학 신태근외 / 10,000원  
한국의 바구니 고광민 / 12,000원  
지방자치연구 조문부 / 12,000원  
지역정보화론 양영철외 / 10,000원

제정신을 차려야 나라가 산다 안창범 / 10,000원  
제주지역 농업의 발전정책 강경선 / 14,000원  
제주지역어의 음운론 김경웅 / 13,000원  
실용영문법 해설(2) 고경환 / 10,000원  
행정법 개론(제2판) 윤양수 / 22,000원  
e-비즈니스 전략론 김민철외 / 9,000원  
영어음성음운 교육론 김중훈 / 12,000원  
환경친화적 한국고유사상의 탄생 안창범 / 15,000원  
식품공학(개정판) 고경선외 / 10,000원  
경주말 서러브레드의 과학 광민수외 / 10,000원  
수론의 이해 송석준 / 6,000원  
주거환경학 김경태 / 12,000원  
지방자치의 이해 강동식 / 8,000원  
영국정치론 장원석외 / 12,000원  
한국산채조리의 목록 이용필외 / 20,000원  
미학과 현실 김현돈 / 10,000원  
보험론 황정봉 / 15,000원  
퇴계사기 예술연구 손오규 / 10,000원  
제주감귤의 발전정책 강경선 / 14,000원  
해양생산 기가학 서두옥외 / 12,000원  
건축계획론 김태일 / 11,000원  
농업생태학 김형욱외 / 11,000원  
Chomsky언어학 이론 양우진 / 6,000원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정대연외 / 12,000원  
말과 여가생활 김문철외 / 9,000원  
사료식물 재배육종 이론 조남기외 / 16,000원

건강한 인간의 탐구 고영규 / 12,000원  
해설 해사법규 안영희외 / 20,000원  
경제철학 박상수 / 9,000원  
영어통사론 학습 교재용 / 12,000원  
보통레를 찾아서 문용성 / 12,000원  
미일관계의 정치경제 강경원 / 15,000원  
식생활과 건강 김수현 / 9,000원  
무역영어 고경표외 / 16,000원  
동아시아와 평화의 섬 제주 고성준외 / 10,000원  
글쓰기의 방법과 실제 고재건외 / 12,000원  
행정법 개론(제3판) 윤양수 / 24,000원  
사료식물 유전자원 육종기술 조남기외 / 16,000원  
지역 해외 농업의 발전정책 강경선 / 14,000원  
중국의 산산수 손오규 / 12,000원  
개정판 사회통계학 정대연 / 15,000원  
국제무역의 이해 김희철외 / 10,000원  
광학 김두철외 / 9,000원  
제주어성 속담으로 바라본 통과의례 문순익 / 12,000원  
수산해양학 노홍길외 / 11,000원  
생명과학실험시 오문외 / 8,000원  
개정 지방자치연구 조문부 / 17,000원  
물의 소독 이용두외 / 14,000원  
제주사회와 제주인 실태조사 / 17,000  
제주지역주민운동론 부민근 / 12,000원

제주대학교 언론 출판부  
전화: (064) 754-2275, FAX: (064) 756-2204



# 교환·유학생 한국어 몰라 수업도 '감감'

## 언어 장벽 해소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해야

### 학교 지원 시설도 '미미'

교환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공 및 교양강의를 듣는데 있어 회화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는 2002년부터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받아들이는 데서 그칠 뿐 이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문제 및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고충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유학생을 받아들였으면 그만큼 그들의 수업권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업에 관한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넘어 학교 측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학생들은 수업에서 애를 먹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교환학생들이 겪

는 어려움을 상담하는 시설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유학생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매결연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오는 방법과 신입학·편입학 하는 방법이다. 현재 제주대는 5개국 19개 학교와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교환학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수가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환학생인 경우 상호 협정체결이 돼있는 대학에 한하며 언어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지만, 일반유학생인 경우 입학시험결과에서 한국어 구사능력 및 대학수학능력을 측정된 뒤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어 구사능력을 검증받고 들어온다 해도 의사소통에는 많은 문제점이 생기며 일반유학생

인 경우 한국어 대화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은 없지만 교양 및 전공과목 수강시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화도 제대로 안 되는 교환학생이 전공수업 연속 강의를 받을 시 약 120분가량 혼자 앉아 필기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만 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본 소카대학에서 온 교환학생 타하라 아키타(사회학과·3)학생은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힘들다"며 "전공수업 때는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편"이라고 자신의 힘겨움을 말했다.

이런 유학생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국제교류팀 자체 내에서 상담을 하고 있지만 홍보와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유학생도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고 있다.

반면 타대와의 사례를 살펴보면 목포대의 경우 대학에 온 외국학생들을 먼저 어학연수를 받은 이후에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면 원하는 학부에 입학하도록 돼있으며, 영남대는 외국인 유학생 도우미를 따로 두어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

또 부산대와 충북대도 외국유학생 담당상담원을 두어 체계적인 상담시스템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상담봉사센터 관계자는 "아직까지 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외국인 프로그램은 없지만 앞으로 생겼으면 좋겠다"며 "외국학생들의 고충을 들어주려면 그만큼의 전문성을 띤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도우미도 두고 싶지만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된 내용도 없을뿐더러 재정적 예산문제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지연 기자 tpecljy@cheju.ac.kr

# 조교 잡무 늘어 업무 가중

## 업무분담 불분명해...협의회 구성 시급

수업 보조 및 학생들의 학사 업무를 처리하는 조교들이 업무 이외의 일들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주대는 101명의 조교가 임용돼 있으며 인문계열은 각 학과에 1명, 이공계열은 연구보조와 실험실습, 학생관련 일 등의 업무량 과다로 2명씩 배치하고 있다.

제주대 학적 제4장 2절 77조에 따르면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나와 있지만 현재 조교들은 학칙에 규정된 일 외에 행정업무 처리, 교수들의 개인적 심부름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칙상에서 거론된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라는 사무보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모 학과 조교는 "원래는 학과 실험, 수업 혹은 연구 보조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하나 공문처리를 비롯 행정 업무도 같이 하고 있어 업무량이 많다"며 "이 외에도 교수님의

연구비 정산을 비롯한 개인적인 잔심부름도 해야 돼 더 힘들다"고 밝혔다. 이공계열 소속 학과의 다른 조교는 "이공계열의 경우 조교가 2명이라 한 명은 행정업무 처리를, 다른 한 명은 학생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조교가 1명인 인문계열은 여기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칙과 관련해 한 조교는 "학사에 관한 사무 보조라는 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학사와 행정의 구분을 따지려면 실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이 행정업무가 아니냐"며 "만약 공문처리가 행정이라고 했을시 현재 하고 있는 수강신청, 학생장학금 관련 일들도 전부다 행정 업무라고 볼 수 있다"며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학칙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주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조교의 고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 전 협의회와 같은 단체가 결성됐었으나 조교들의 임기가 짧고 불규칙해 유명무실화 되고 말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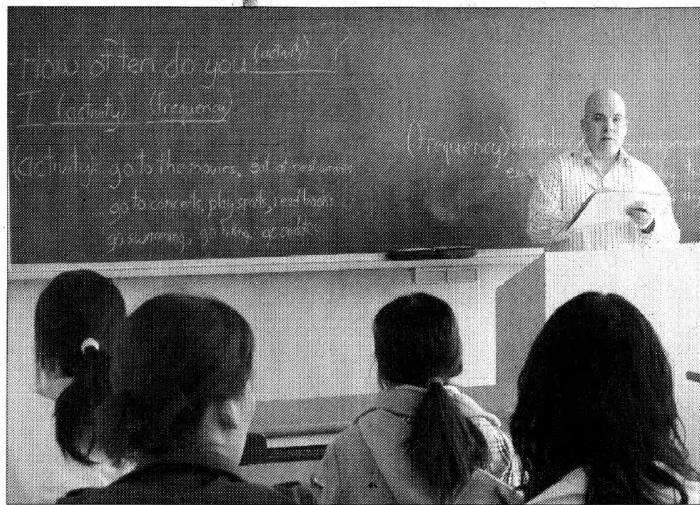
현재 총남대, 경북대, 전남대 등을 비롯한 타대학교에서는 '조교협의회'를 결성해 조교들의 고충문제 및 권리보호를 하고 있다. 조병우(총남대 조교협의회) 회장은 "조교협의회는 조교들의 임기가 짧아 서로 교류하기 힘들고, 서로 교류가 있다 해도 한계가 있어 이런 일들을 없애고자 구성됐다"며 "현재 조교들간 업무상 교류 및 상호협력체계를 갖추고 조교들의 권익을 신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학과 조교는 "이런 기구들이 있으면 다른 단체 조교들과 업무 교류가 더욱 용이하고 불만 등을 서로 토로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며 "이런 기관이 단순히 만들어졌다 쉽게 사라지는 것보다 오래도록 지속돼 조교들간의 상호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성될 수 있고 조교들의 권익과 권리를 보호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고우정 기자 hotw312@cheju.ac.kr

# 외국인 교원 보수 낮아 지원자 격감

## "그나마 환경 탁월해 선택"...복지혜택도 늘려야



법정대 원어민 강사 트레비스가 강의를 하고 있다.

제주대에 임용된 외국인 교원들이 타 대학에 비해 대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이유로 제주대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대에 온 외국인 교원 대부분이 1년에서 2년만 제주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제주대에는 초빙교원 6명, 국가지정교수 1명, 김녕미로공원 기금교수 1명, 법정대 원어민 강사 4명, 외교관 외국인 교원 5명으로 총 17명의 외국인 교원이 재직하고 있다.

교원들의 급여를 조사해본 결과 초빙교원과 외교관 교원은 모두 월 180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국가지정교수는 연봉 7000만원, 김녕미로공원 기금교수는 월 200만원, 원어민 강사는 월 210만원을 받고 있다.

이는 타 대학과 비교해 적은 수준이다. 목포대의 경우 학사는 월 180만원, 석사는 월 200만원이며 영어전공자의 경우 210만원까지 받는다. 전북대의 경우에는 월 210

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우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대로 오는 이유는 자연환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출신의 한 외국인 교원은 "서울에서 강의를 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환경이 좋은 제주로 왔다"고 말했다. 미국 출신의 한 외국인 교원도 "급여는 적지만 자연환경이 맘에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임용시 인터뷰를 할 때도 나타난다. 외국어교육과 관계자는 "임용할 때 제주도 환경이 좋아서 제주대학교에 지원한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적인 부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온다고 말하면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 교원에 대한 계약기간은 기금교수(계약기간 2년)를 제외한 나머지 교원은 1년인데 계약한 1년만 재직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교원이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휴양 차 왔다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외교관 교원의 경우 1년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으며 법정대의 경우 1년이나 2년 정도 재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 실제 조사결과 2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 외국인 교원은 "환경 적응이나 대우문제가 있고 학생들의 불만에 의해 연장 계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대 관계자는 "한 외국인 교원은 제주대와 제주를 마음에 들어했지만 학생들의 불만이 많이 접수돼 연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외국인 교원은 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았지만 사정으로 인해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재직기간이 짧은 문제는 제주대에 몸담는 외국인 교원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학생에 대한 분석이나 환경에 대한 적응이 되지 않은 교수가 많아 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원어민 강의의 수강하고 있는 2학년 학생은 "문화적인 차이로 제주대 학생에 대한 적응 문제도 강의가 어려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교수지원과 관계자는 "교원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호근 기자 journalist@cheju.ac.kr



공은 어디에? 공과대 학생들이 지난 12일 새내기 체육대회를 열고 발야구를 하고 있다.

조지연 기자

# "신축 병원 사업비 직원 손으로"

## 제주대병원 직원, 신축사업비 모금 나서



제주대 병원 신축 사업비 모금 약정서 서명식 모습

'제주대병원 신축 사업비 모금 약정서 서명식'이 지난 14일 제주대병원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삼립 병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서명식은 1,407억원이 넘는 건립비용 마련을 위한 것으로 김삼립 병원장이 3000만원 기증의사를 밝혔

다. 그 외 이창현 진료처장, 강철호 사무국장, 남상욱 간호부장, 신명성 총무과장 등이 각각 1000만원씩 후원하기로 약정했으며 이윤근 전 한미음 병원장도 1000만원을 기탁해 후원금 마련에 힘을 보탰다.

병원 측은 이번 서약식을 시작으로 병원 신축사업비 1407억원 중 국고지원 733억원을 제외한 674억원을 자체 마련하기 위해 병원발전 후원회를 결성, 본격적인 모금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제주대병원은 지난해 11월 1일 착공식을 거처오는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제주시 아라동에 500병상을 갖춘 최첨단 디지털 병원 건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고우정 기자 hotw312@cheju.ac.kr

# 제주대·제주교대 통합방안 논의

## 유사학과 통폐합은 '글쎄'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국공립대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제주대와 제주교대도 지난 7일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제주권역 구조개혁추진을 논의하고 권역발전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제주상공회의소, 학부모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제주대 사법대와 교대간에 통폐합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이 유사학과 통폐합이라는 점에서 대학 특성상 유사학과가 없다는 점과 양 대학 총장의 부재로 직무대리 체제에서 무거운 사안을

논의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 기획과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것은 유사학과 통폐합이기 때문에 사대와 교대의 중등교육과 초등교육은 교육과정상 유사성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대와 교대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제주대와 제주교대 모두 총장이 부재한 관계로 통합에 대한 사안은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3월중에 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때 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호근 기자 journalist@cheju.ac.kr

# 하와이대와 국제교류협정 체결

## 학생교류·학술정보·자료교환 실시

제주대가 지난 13일 하와이대 마노아캠퍼스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양대학간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위한 상호 협력을 합의했다.

이날 학교측은 마노아캠퍼스가 기본협정과 세부협정을 담은 협정서를 최근 우편으로 발송해 왔다고 전했다. 앞서 양대학은 지난 2월 28일자로 학술교류협정 및 국제교류에 관한 협정을 교환하기로 하고, 오는 4월부터 세부적인 협의를 거처기로 했다.

기본협정과 세부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학자 및 학생교류, 학술정

보 및 관광·해양과학·아열대농업·법·행정·한국학·국제사회학 등에 대한 자료교환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 "이번 학술교류협정을 통해 영어권 국가와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와이대 마노아캠퍼스는 1907년 설립된 10개 하와이대 조지 중 하나로 300여 개의 학부·대학원·연구원·자격증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1만 4000명의 대학원학생이 재학 중이다. 조지연 기자 tpecljy@cheju.ac.kr

# 의학전문대학원 오는 2008년 도입

## 이공계열 성장 발판...의예과는 폐지될 듯

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의학전문대학원'이 2008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학교측은 "지난해 교육부에 기본계획서를 제출,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며" "교육부가 다음주 중으로 강원대, 충남대와 함께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됨에 따라 대학입학 단계에 집중된 과열 경쟁이 완화되며 타진공을 한 학생들도 의사가 될 확률이 높아져 폭 넓은 교양과 높은 도덕성을 갖춘 의사 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2008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과 동시에 학부과정의 의예과를 폐지하게 되고 해당년도 이전의 학

부생은 현행대로 6년을 거쳐 학사 학위를 수여받게 된다.

기획과 이수인 계장은 "전수과목을 미리 공부한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이공계열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부제보다 교차원칙인 의학 연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jye0987@cheju.ac.kr



## 캠퍼스 곳곳에 담배꽂초 '한심'

### 타인의 금연권도 존중해야



흡연자들이 담배 꽂초를 아무데나 버려 미관을 해치고 있다.

강의를 듣기 위해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는 학생도 있고 봄을 만끽하기 위해 친구들과 거니는 학생들도 보인다. 하지만 학내 곳곳에서 흡연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는 통에 비흡연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이 시작됨에 따라 제주대는 지난해 7월 모든 건물에 '금연 구역'으로 선정하면서 건물내부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사회적으로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지만 제주대는 아직도 대다수 담배를 피는 학생들

이 건물 내부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담배를 피는 학생들은 건물 화장실이나 중앙현관, 도서관 휴게실 등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며 흡연실을 연상케 하고 있다. 또 캠퍼스내 길 곳곳에서는 담배를 피는 학생들 때문에 뒤에서 걷는 다른 학생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한 학생은 "교양동이나 단과대 중앙현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타한 공기를 접했을 때는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용역을 담당하는 한 아주머니는 "학교를 청소하다 보면 구석구석 담배꽂초 없는 곳이 없다"며 "담배를 피우더라도 담배 꽂초는 휴지통에 버리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무과 관계자는 "많은 학생들이 강의실보다는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화장실을 사용하는 학생들이나 청소하는 분들이 매우 힘들어하기 때문에 흡연은 될 수 있으면 건물외부에서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대가 흡연자에 속수무책인 반면 타 대학에서는 금연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인제대의 경우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다수 교수와 학생들의 참여 속에 1998년부터 담배를 끊었다. 이는 홍보관을 캠퍼스 곳곳에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금연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계명대도 학생들이 주축이 돼 학내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학내에서는 담배피는 학생을 찾아보기 힘들다. 청정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제주대가 금연운동에 앞장서 좋은 환경에서 학문에 정진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원지애 기자 fate0204@cheju.ac.kr

## 출판부 간행서적 100종 돌파

### 20여년 만에 103종 6만여권 발간



언론·출판센터 출판부(부장 김진영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해 발행 중수 100종을 돌파했다.

출판부에 따르면 지난 84년 5월 대학 출판부가 발족된 이래 지난해 103종 6만200여권을 펴냈다. 지난 한해에만 16종 6450권을 출판한데 이어 한해 20여종 가까이 출판물을 내는데다 「글쓰기의 방법과 실제」 등 대학교재 활용이 늘어나 100종 돌파를 기록한 것이다.

이로써 출판부는 대학 학문의 수준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제주지역 학술 출판의 본산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는 최근 출판부내 조직개편과 전자출판 도입, 판매망 확장 등을 통해 '작지만 큰' 성과를 이뤄낸 것. 제주대 출판부는 94년 11월 대학 출판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2001년 제주대 언론·출판센터로 통합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했다.

또 85년 한국대학출판부협의회 및 94년 한국출판협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전국 서점과 계약, 판매망을 확장했다. 주로 제주대 교수들의 원고를 받아 책을 내고 있는 출판부는 출간서적이 2배 가까이 늘어난 매년 20여건 가까이 발간하는 등 발행량도 크게 늘었다.

김진영 출판부장은 "출판부가 그동안 필자로부터 출판 의뢰를 받아 학술·교재·교양 관계 책을 내는데 자족해 왔다"며 "앞으로 대학 출판부가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독자의 고급 독서욕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판부는 다음달 중으로 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출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김지혜 기자 jye0987@cheju.ac.kr

## 아 라 단 신

### 교양과목 172개 강좌 폐강

#### 학부전공은 공과대가 가장 많아

200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최종 마감한 결과 학부와 대학원 3019개 강좌 중 172개 강좌가 최종 폐강됐다.

학부 교양과목은 683개 강좌가 개설됐으나 수강신청미달 등으로 67개 과목이 폐강됐다. 학부전공 가운데는 공과대가 18개 강좌가 폐강돼 가장 많았고, 해양대·자연과학대·생명자원과학대·경상대가 각각 10개 강좌씩 폐강됐다.

일반대학원은 682강좌 중 22개 강좌가 사라졌고 교육대학원은 5개 강좌가 폐강됐다.

### 의과대학 맞춤형의학연구센터 설립 추진

#### 유전정보 활용한 신기술 도입

제주대 의과대학이 유전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의학 연구센터 설립사업을 추진한다.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기초의과학연구센터 공모사업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유전정보 맞춤형 의학 연구센터(대표자 배종면 교수)는 유전정보를 활용해 개인별 질병예측 및 예방과 치료를 최정밀도로 단계별로 △제주도민 유전은행 운영 및 집단 유전정보 탐색 △복합질환 관련 유전적 연구 및 단백질 연구 △악성종양체 연구 및 유전정보학 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 제15기 고급관리자 과정 입학식

#### 행정대학원 주최



제주대 행정대학원 2005학년도 제15기 고급관리자 과정 입학식이 지난 11일 행정대학원(원장 양석원 법학부 교수)주최로 법정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격려사에서 안영환(총장 직무대행)교무처장은 "여러분들은 우리 제주지역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으며 제주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주춧돌인 만큼 제주대의 미래 또한 희망과 도전을 위한 화합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여러분들의 큰 뜻이 앞으로 상호 건전한 비판과 재촉 속에서 활짝 꽃 피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입학식 이후 '경주 최후자 집 철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조용현(원광대)교수의 입학기념 특강이 열렸다.

### 제4기 고급환경전문가 과정 입학식

#### 산업대학원 주최



2005학년도 제4기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입학식이 지난 11일 산업대학원(원장 최영한 해양과학부 교수)주최로 법정대 중강당에서 입학식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영환(총장 직무대행)교무처장은 "입학을 축하드린다"며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제주도 환경보존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한욱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도는 환경전문가가 탄생할 거라고 있다"며 "아름다운 제주환경을 함께 보호하자"고 말했다.

### 제3기 제주도 유학지도자과정 입학식

#### 평생교육원 주최

제3기 제주도 유학지도자과정 입학식이 지난 11일 평생교육원(원장 강동원 교수) 주최로 평생교육원에서 열렸다.

이날 격려사에서 안영환(총장 직무대행)교무처장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 세계화·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는 제주 변화의 위대한 주체가 되어 한다"며 "교육목표에 부합되도록 급변하는 사회의 구심점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전통을 계승하면서 붕괴되고 있는 사회적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세대간 이질감을 해소해 사랑과 정의 넘치는 밝은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수 보유 특허권 이전

#### 산학협력단

교수들의 특허권·의장권 등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명의이전 작업'이 산학협력단(단장 김부환 법학과 교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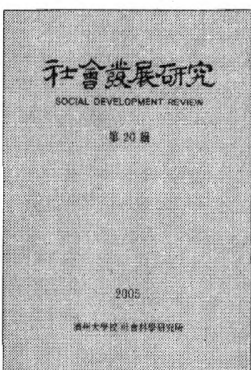
이번 작업으로 교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에 대해 기업체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교수 개인의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은 '전분박 탈수장치' 등 47건이며 '열효율방향과 태양열의 집열조절이 가능한 태양열 이용난방장치' 등 4건의 특허권을 보유한 교수도 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지적재산권에 관한 지침을 제정, 기업체에 대한 기술이전방안을 추진 중이며 현재 11건이 명의 이전됐다. 김지혜 기자 jye0987@cheju.ac.kr

### 사회발전연구 제19집 발간

####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이경원 교수)가 지난달 '사회발전연구 제19집'을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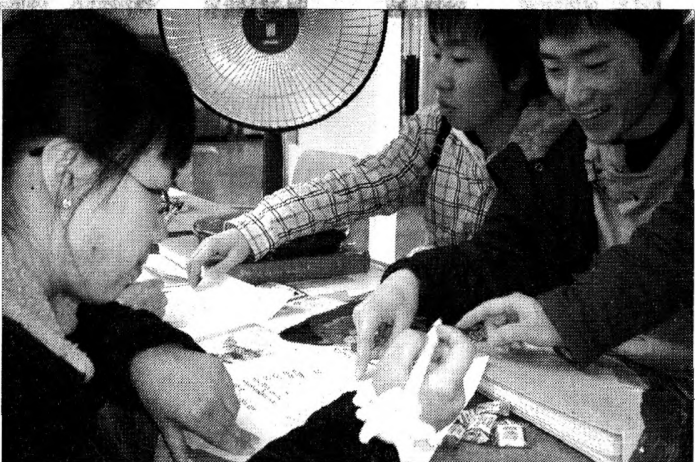
이 책에는 김진영 사회학과 교수·황석규 사회학과 강사·정용복 언론·출판센터 간사의 '대학신문 이용과 만족도 평가: 제대신문을 중심으로' 외 10개의 교수논문이 들어 있다.

한편 책에 등재된 '대학신문 이용과 만족도 평가: 제대신문을 중심으로'는 대학신문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현재 대학신문이 당면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학신문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송수연 기자 song@cheju.ac.kr

## 백두관은 '동아리 신입생 모집' 각축장

### 신입생 관심 부족으로 홍보 열흘러



직접사회의 회원들이 신입생 원서 접수 받고 있다.

학내 동아리들이 신입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백두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동아리 새내기 공개모집은 지난 1일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매일 12시가 되면 백두관 앞에서는 각 공영분과 동아리들의 공연을 볼 수 있으며, 2층 전시실 및 한라홀 앞에서 동아리 홍보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아리의 홍보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입회원 유치는 예전보다 많이 감소된 추세다. 학내 공영분과 동아리의 한 학생은 "백두관 내에 책상을 놓고 회원들이 매일 교대로 나와 홍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새내기들의 호기심 자극에만 그칠 뿐"이라며 "특히 공영분과나 스포츠 동아리는 예전보다 신입회원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동아리연합회(회장 허진호 해양과학3, 이하 동연)회장은 "예전보다 사회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고 유행에 따라 동아리의 인기도가 좌우되는 것 같다"며 "학생들이 동아리보다는 학과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강해 동아리인원이 감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복순(인문사회1)학생은 "신관주변을 장식하고 있는 동아리 플래카드와 포스터 및 전단

지는 단순한 홍보의 도구인 것 같다"며 "신입생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홍보를 한다면 많은 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신입생은 "학술분과에는 관심이 많지만 굳이 동아리가 아니어도 사람을 사귀고 싶은 공간은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한다"며 "유망직종과 관련된 동아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신입생들은 동아리 자체에 대한 흥미는 있으나 막상 가입하기엔 망설여진다고 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허 회장은 "앞으로 동아리를 새내기들에게 친근한 존재로 인식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동아리를 통해 학생주체문화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지연 기자 tpegy@cheju.ac.kr

### 법학전문대학원 1도1대학 원칙 지켜야

#### 전국 거점국립대학교 총장 기자회견

전국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총장들은 16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대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지역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은 대동연계 드리는 건의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은 모든 지역에 고급인재 양성의 지속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1도 1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총장들은 또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법부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립기관으로 확립하는 한편, 지식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법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개혁은 사법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환골탈태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공식 중인 총장을 대신해 양석원 법정대총장이 참석했다.

한편 오는 2008학년도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이 처음 입학하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시험 후 2012년까지 5년간 병행 실시되다가 2013년에 폐지될 전망이다.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하위 △학부 성적 △어학능력 △적성시험 성적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입학자를 선발하고 응시횟수는 제한하기로 했다.

즉 앞으로 학사학위가 있으면 전공과 무관하게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으며 고졸학생 등 학사학위가 없는 사람은 법조인이 될 수 없다.

고우정 기자 hotw312@cheju.ac.kr

### "원어민 강좌 부담된다" 불만 늘어

#### 법정대, 학생들 취업위해 불가피

법정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어민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법정대학은 지난 95년부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영어회화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원어민 강좌를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장학금 혜택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통 학기당 19학점 내지 24학점을 받으면 대학 졸업이 가능하나, 주일마다 원어민 강좌 4시간이 포함돼 수업 따라가기도 벅차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학점이 아무리 우수해도 모의 토익을 보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2 대학을 입학한 신입생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모의토익을 보지 않았다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준 행정학과 교수(원어민 강좌 담당)는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갖고는 있지만 원어민 강좌와 모의토익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능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알기 위해 우선 상·중·하로 레벨 테스트를 받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원어민 강좌를 학점제도로 개선하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정대학의 한 학생은 "개인적으로 학원 수강을 하고 싶지만, 이중 부담이 꽤 그렇지 못하다"면서 "학생들의 의견도 수용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CEBS 김이랑 기자



# 교수 논단

## 감물염색 제품개발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



홍희숙 의류학과 교수

“제주 전통노동복에서  
자연스러운 색상과  
스타일로 변신 거듭”

### 갈옷 및 감물염색의 소개

갈옷은 제주 토착 서민들이 이조시대부터 노동 용도로 입었던 것으로 목면 등의 천을 제주 토종 찻감 즙으로 물들인 갈천으로 만든 제주양식의 옷(상의 갈적삼, 하의 갈중이)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감물(찻감 즙)을 들인 갈천으로 만든 의류제품들을 통틀어 ‘갈옷’이라고 칭한다.

갈옷의 소재인 갈천을 만들기 위한 감물 염색 방법은 ▲ 음력 7월 즙을 제주 토종 찻감 따기 ▲ 찻감 즙 만들기 ▲ 찻감 즙으로 직물 물들이기 ▲ 햇빛에 말리기 ▲ 물에 적시기 ▲ 햇빛에 말리기의 순이다. 이때 물에 적시기와 말리기를 반복할수록 갈색이 점차 진해지므로 이 과정을 4~6일 정도 반복해 원하는 색조가 나타나면 이를 중단한다. 이러한 반복횟수가 지나치면 어두운 색조의 칙칙한 흙갈색이 얻어지므로 8일(일조량이 좋은 경우)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나 상황과 원하는 색조에 따라 반복 일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물염색에 의한 발색은 연미녹색에서 연황토색이 되고 점차 중황토색으로 짙게 되어 적황색으로 발색되며, 염색된 갈천은 풀 먹인 푸새효과를 가져 뽕뽕해진다. 이렇게 발색되는 갈색은 여러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찻감의 요인으로 찻감의 종류(제주 토종 찻감 또는 단감)와 찻감의 탄닌 함량, 찻감 즙 요인으로는 찻감 즙의 농도(물과의 혼합 정도), 찻감 즙과 다른 원액(양과 겹질)의 혼합 정도 및 혼합액의 종류(양과 겹질 또는 치자 쏜), 기구 요인으로 햇볕 조사량, 햇볕 강도, 습도, 발색 과정의 요인으로는 발색 횟수, 재료 요인으로는 직물 종류(면, 실크 등), 매염제 요인으로는 매염제 종류(동, 철, 주석 등)와

농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갈옷 및 감물 염색 제품은 그 색상이 갈색을 띄지만 이러한 요인의 변화에 따라 붉은 갈색, 흙 갈색, 밤색, 황토색, 베이지 색 등의 여러 종류의 갈색과 다양한 농도의 색조가 얻을 수 있다.

감물염색에 의한 발색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찻감 즙에 들어 있는鞣酸(타닌) 성분과 산소와 결합하여 응고된 후 자외선, 물, 산소 등에 의해 산화 또는 중합되는 화학반응을 통해 점차 발색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감 식물색소보다 감 탄닌 성분이 염색에 관여하는 정도가 높으며, 특히 자외선이 발색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감물염색 제품 개발 현황

최근 갈옷 제품의 형태적 특성을 살펴 보면 상업화 초기에 나타난 획일적 형태의 전통적 갈옷 또는 생활한복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수나 누비를 활용하거나 패치워크를 활용하는 한편 갈옷의 획일적 색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갈색의 여러 색조를 다르게 배색하거나 패치워크나 플라이 문양이 프린트된 원단에 감물을 들인 다양한 문양의 갈옷 제품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인 산악인 컨소시엄 연구개발을 통해 제주와 한국의 문화성을 계승하면서 소비자의 현대적 일상생활에 적합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갈옷의 상품화가 시도되면서 갈천 개발에 욕망이나 광복 소재 이외의 소향, 모시, 마, 인견 등 다양한 소재들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형태가 현대생활에 적합하도록 서양복 구성처럼 개발되는가 하면 갈옷의 구조적 또는 장식적 디테일은 한국적 이미지(탈

지, 전통 조각보, 전통복식, 한지 창호의 창살, 박쥐매듭 등)이 응용되고 있다.

이외 레이스나 리본 등의 부자재도 감물로 염색해 갈옷 제작에 사용함으로써 최근의 페미니하고 로맨틱한 패션트렌드가 수용되는가 하면 감물염색 과정 중 얻은 천을 햇볕에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물리적 변형을 가함으로써 갈천에 문양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재질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갈옷의 색상과 색조는 갈옷이 상업화되는 초기에는 과거의 전통적 갈옷의 색상과 마찬가지로 붉은 기가 강한 벽돌 색을 띄었다. 그러나 최근 산악인 컨소시엄 연구개발을 통해 갈옷에 의류제품으로서의 심미성, 실용성, 트렌드,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게 되면서 붉은 갈색을 띄는 갈옷은 감소하고 붉은 색 기운이 비교적 약한 황토색 계통의 갈옷이 증가하고 있다.

즉 붉은 갈색이나 흙 갈색은 갈옷 전체의 색상이기보다 갈옷의 디자인적 변화를 주기위한 디테일이나 패치워크에서 갈옷 전체의 색상과 대조시키는 색조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처음 상업화되는 시절에는 보다 색의 농도에 따른 색조의 차이가 매우 다양화되었다.

이외에도 갈색과 조화되는 다른 색상의 천연 염색 소재(속 염색, 속목 등의 원단)를 이용해 디테일 부분에 배색시킴으로써 갈옷 디자인의 색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제품개발 범주 또한 상업화 초기에는 의류제품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패션잡화(모자, 가방, 지갑 등)는 물론 휴대폰(침구, 테이블 보 등)과 악세서리 제품(열쇠고리, 헤어밴드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품질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고급화나 다량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감물염색 제품의 향후 과제

갈옷 제품은 감물염색에 의해 향상되는 제품특성(내구성, 통기성, 자외선 차단성) 이외에도 화학염색과는 다른 건강기능성이나 환경친화성으로 최근의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가 하면, 제주의 전통과 문화를 반영한 제주 이미지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고취시키는 한편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옷 제품은 시장 확대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염색 견뢰도의 문제로 시간의 경과, 일광에의 지속적 노출, 습도의 영향, 땀과의 접촉, 알칼리성 세제의 세탁에 따른 색상의 변화 또는 소비자의 부패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업체 대부분은 비전문적 패턴 구성이나 체계적인 사이즈 스펙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 있다. 염색견뢰도 향상을 위한 과학적 연구의 지속 및 활성화, 염색견뢰도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한 마케팅 및 소비자 교육 측면에서의 접근, 야외작업 조건을 재현시키는 실내 작업장 환경 및 기계 설비에 대한 연구 및 구축, 제품기획 및 개발에 있어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한 현대복 스타일의 확대 또는 서양복식과 한국복식 형태의 접목, 제주와 한국적 이미지의 조화, 패션트렌드 및 소비자 선호도의 반영은 물론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제품의 건강기능성을 강화시킨 건강기능성 의류제품의 기획과 개발, 제품 제작에 있어서 전문적 패턴구성 및 체계적 사이즈 스펙의 적용 등을 통한 감물염색 제품의 고급화, 앞에서 열거한 과제들의 해결은 물론 감물염색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적 감물염색 및 제품개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유관기관의 지원과 감물염색 및 갈옷 관련 업체의 노력 또한 절실하다.

〈이 내용은 필자가 한국색채학회 2003년 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던 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 내용의 자세한 출처나 인용문헌은 논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권의 책/ Mario Morgan



양창웅(영어교육학과) 교수

## ‘Mutant Message Down Under’

독자들이 책을 선택하는 이유와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 독자들은 책 읽기를 통해 저자 혹은 책과의 내적 교감을 추구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내적인 조율을 위한 책읽기를 선택한다면 책 선택은 다소 기계적일 수 있는데, 이는 독자들의 권유, 저자의 이름을 통한 선택 등이 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서 소개하려는 책 또한 이러한 방법적인 면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듯하다. 물론 그 순서는 다소 바뀌어도 말이다. 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시절 인류학을 공부하던 동안의 권유에 의해 먼저 접했고, 읽기를 통해 마음에 뭔가 느낌이 전해졌던 그런 책이었다.

그 당시 그냥 떠돌이 듯 살아가던 그래서 버거웠던 마음에 다소 위안을 줬기 때문이다. 급박한 시대의 조류 속에서 몸을 맡기고 현대문명의 이기가 빼앗아 가버려,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잠시 놓아버린 우리들의 삶에 잠시 외로움을 느낄 여유를 가져다 주는 한 권의 책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서로 먼저 읽었던 책은 Mario Morgan(마리오 모건)이 쓴 ‘Mutant Message Down Under’이다. 처음에는 김석희에 의해 ‘무탄트’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고, 최근 류시화씨에 의해 ‘그곳에선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었다’, 보다 근래에는 ‘무탄트 메

시지’로 번역 소개되었다. 제목에 나오는 ‘무탄트’는 돌연변이란 뜻으로 원주민에게는 그들과는 다른 문명세계가 되는 것이다. 자연에 순응하며, 조화를 이루는 자연인 원주민 특색(참치밥 부축)에게 문명인은 그들과는 다른 돌연변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명은 위대한 자연 앞에서 이상한 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깨달음을 첫 장의 제목에서 느끼기에 충분하다.

책의 배경은 오스트레일리아로 넘어간다. 흔히 영어의 ‘outback’으로 널리 알려진 오스트레일리아의 ‘오지’를 배경으로 자칭 문명인이 겪는 문명화되지 못한 사회 속으로의 여행을 통한 ‘세상 달리 보기’가 전체 줄거리이다. 예방의학학을 전공한 저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한 부족의 여행에 초대를 받는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3개월 간의 긴 여정이다. 문명을 대변하는 저자는 책의 초반에서 외양을 통해 묘사된다. “하이에나를 닮은 채 낡은 지프에 올라타려니가 몹시 불편하고 어색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너무 처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문명인 그의 개성에 문명화되지 못한 부족의 삶의 방식, 이야기하고, 먹고, 청소하고, 그리고 스스로 돌보는 방법 등을 긴 여정과 정에서 배워야 했다.

문명화되지 못한 불편한 속에서 저자는 때면 스스로 깨닫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해나가고 있음을 고백한다.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지나간 일로부터 배워야만 했다. 내가 남을 받아들이고 남한테 진실해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남한테 진실해지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이다. 긴 여정 속에서 자신이 원주민에 동화되어 이들의 일부가 되어간다. 결국 여행이 끝났을 때 저자의 결론은 동화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누더기같은 거지에 불과했다”라고. 저자는 자신이 원주민에 의해 상징되는 순수성을 문명화된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원주민에 의해 선택된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다시 문명의 세계로 돌아온 저자는 그가 겪었던 삶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는 것이다. 이 책의 탄생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3월, 우리에게 출발의 의미로 다가오는 계절이다. 발학의 끝, 신입생, 새로운 친구 등 낯설음을 의미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3월의 캠퍼스 속에서 자기 찾기를 시작하는 신입생, 혹은 재학생들이 이 책과 함께 자기 색깔을 낼 수 있는 꿈을 꾀하기를 바라며,

## 제주대신문사 제53기 수습기자 19일까지 모집

제주대신문사에서 제53기 수습기자를 19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학생활을 보람있고 뜻깊게 보내고 싶다면 열정만 갖고 오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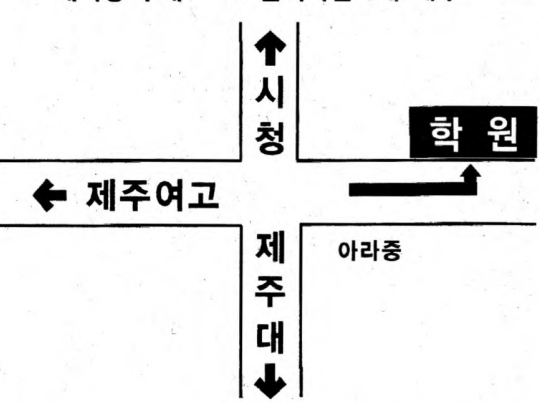
모집기간: 3월 19일까지  
모집대상: 05학번  
문의: 본관 3층 언론·출판센터  
제주대신문사(754-2279)  
홈페이지: www.cnpupress.com

제주대신문사

## 운 전 면 허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 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서울 운행: 제주대 → 학원(08:30~18:30)  
매시 30분 제주대정문앞 출발
- 대학생 우대 ○ 필기시험교재 배부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756-7755  
HP: 011-692-4758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사이 5분 간격 셔틀 운행

## 2005학년도 1학기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무상장학금) 지원 추가신청 안내

### 1. 지원대상

농업계열 대학에 재학하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어)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 단, 지급대상 학생의 친권자인 농어업인(경영주) 또는 대학생 본인이 공무원, 회사원, 상인, 공공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제외

### 2. 신청기간

2005. 3. 7~3. 19(2주간)

### 3. 접수기관

농업인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4. 대학 및 학과 범위

일반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의 농업계열 학과, 사이버대학의 농업계열학과 (농협대학, 방송대학, 교육대학 등 제외)

### 5. 지급금액

- 국·공립대 대학생: 전액 지급
- 사립대 대학생: 174만원 지급(국립대의 상한금)

- 액) 단, 당해학기에 여타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액을 감액 후 지원
- 사이버대학생: 1학기에 고지된 등록금의 70%

### 6. 신청 및 첨부 서류

- 가. 농업계열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 1부(붙임 2서식)
- 나. 등록금 납입 영수증, 성적통보(증명)서, 장학금 수혜실적(해당자) 각 1부
- 다. 농업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라. 본인서약서, 부모연대보증서 각 1부(붙임 3, 4서식)

※ 지원대상자에게는 4.4까지 통장으로 입금할 계획임.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여성농업인관장/알림마당에 세부내용을 게시하였으니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05. 3.  
농 립 부  
(여성정책과 02-500-1607, 1609)









나는 달린다-제대인 인터뷰(35)

홍성추(관광학과 26회 졸업)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겸 산업부장

## “대학생활 동안 인생계획 세워라”

## -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서울신문 편집국 산업부 데스크로서 산업계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대부분의 중앙 일간지는 경제부를 ‘정책’과 ‘실물경제’ 분야로 나누고 있다. 쉽게 말하면 경제부는 ‘정책’을, ‘산업부’는 각 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와 건설·교통분야를 총괄한다고 보면 된다.”

## - 어떻게 해서 기자란 직업을 갖게 됐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기자가 꿈이었다. 아버지와 의견이 엇갈려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기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제대신문사 기자를 하면서 꿈을 향한 걸음을 내딛었다.”

재학중에 각 대학 언론계 지망 학도를 상대로 한 장학금 수여자로 선정됐으며 이를 계기로 ‘제주신문사’에 입사하게 됐다. 짧은 제주신문 재직기간 중이었지만 기획물인 ‘사료와 현장을 중심으로 엮는 유배인 열전’을 1년2개월동안 연재하기도 했다.

84년 마침 서울신문에서 경력기자 공채가 있어 시험에 응시, 서울신문 기자가 돼 오늘에 이르렀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성균관대 대학원에 진학,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힘든 때도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읽고 좋아했던 직업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걷게 됐다.”

## - 학창시절은 어땠는지

“75년도에 대학입학을 하고 2년 뒤 군대를 갔다. 군 생활을 한 후 80년에 복학했다. 그 유명한 ‘80년 봄’을 직접 경험했다.”

5·17계엄후 대학은 긴 휴학에 들어갔고 모든 일정은 리프트로 대체됐다. 그 해 9월 개강 후 제대신문 편집장을 맡게됐다. 남은 학창시절은 오직 신문 만드는 재미에 빠져 보냈다. 당시엔 학생운동이 빈번했던 시기여서 학교자체가 어수선했지만 학교에는 지금과는 다른 낭만이 있었다.

대학의 낭만이란 한여름날 도서관에서 밤을 흘리며 공부하는 것과 비오는 날에는 친구들과 관중 없는 축구를 하는 것도 낭만이다. 이렇듯 대학생이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노력했으며 공부에 있어서는 나만의 확실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남이 모르는 것은 ‘실수’이지만 내가 모르는 것은 ‘무식’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기본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 - 기자가 되려는 학생들에게 조언한다면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신문사는 많이 쳐져있다. 몇 년전만해도 신분 보장과 더불어 ‘제4부’라고 일컬을 정도로 고급직종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언론고시’를 통과해야만 기자가 될 수 있다. 경쟁력이 치열한 직종이다. 그만큼 기자란 직업은 여전히 매력적인 직업이다.”

전혀 매력적인 직업이다.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기억력, 순발력, 문장력이 뛰어나야 한다.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 때 기자는 그 사건을 남보다 빨리 취재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취재한 내용은 기사에서 드러나기 마련이고 기사는 곧 기자의 실력이 된다. 다시말해 실력을 숨기지 못하는 것이 기자사화다.

기자가 되고 싶으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하고 특히 호기심이 많아야 한다. 현상을 그대로 보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 -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얼마든지 누리고 졸업하라. 다양한 경험도 중요하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인생을 축적하고 설계했느냐는 사회에 나가면 자신의 실력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대 출신일에 가족지 말고 당당하라. 지방대 출신이란 타이틀은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 나의 경우 회사에 입사한 동기들은 내가 지방대 출신임을 알고 뒤통수를 찔러 생각해 견제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나는 부단히 노력했고 그 결과 국장과 부장을 역임할 수 있었다.

현재 제주출신 중앙 언론인 중 유일한 편집국 데스크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듯 끊임없는 노력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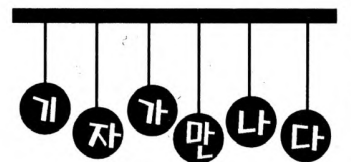
한 자기만의 특기를 살려야 극복할 수 있다. 또 어려운 취업난을 뚫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4년동안 인생계획을 세우고 공부해야 한다. 길게 보자면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스테디를 만들어 공부하는 등 기본 외국어 실력은 꼭 갖추길 바란다.”

김정미 기자 jung@cheju.ac.kr

## 약력

1982년 제주대 관광학과 졸업  
1982년 제주신문사 입사  
1998년 성균관대 대학원 졸업  
1984년 12월1일 서울신문 편집국 기자로 입사  
1998년 5월 서울신문사 발행 시사주간지 뉴스피클 편집장  
1999년 서울신문 편집국 행정뉴팀 부장  
2002년 3월 서울신문 편집국 기획취재팀 팀장  
2002년 6월 서울신문 광고매케팅 국장  
현재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겸 산업부장

## 봉사단체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부단장 김정자(61씨)



“봉사활동은 자아실현의 길을 열어줘요. 나 혼자만 돌보는 삶보다 어려운 이들과 더불어 사는 삶이 더 행복하죠.”

올해 환갑을 갓 넘긴 김정자씨. 김씨는 현재 봉사단체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부단장이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제주학생문화원에 소속된 55세 이상 전직 교육자, 전문직 종사자 등이 모인 교육 봉사단체로서 푸르름, 예울림, 초당, 쉼터, 산물림, 숲발, 길벗 등 7개 학습 동아리로 나뉘 교육소의 계층에 대한 교육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 동아리별 주요 활동으로는 노인회관 및 양로원 방문, 유자원생 대상 한문 교육, 레크리에이션 지도, 제주도 역사 탐방, 학생 상담 봉사 등을 한다.

김씨는 현재 ‘쉼터’ 동아리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성교육 강사 활동, 독거노인 대상 식사 배급 및 동네 관광지 주변 환경미화 봉사도 병행하고 있다.

그는 “저희 단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남을 가르치면서 부지런해지고 바쁘게 사는 인생을 아름답게 느끼며 활동하고 있다”며 “모두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봉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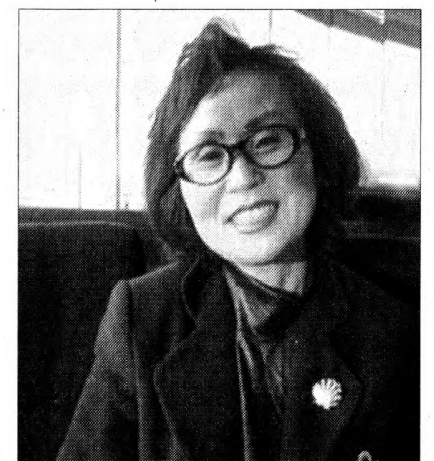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묻자 그는 “우선 제주도에 전체가 활동 지역이기 때문에 원거리 지역에 따른 교통비가 많이 들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돈을 따로 받으면서 봉사활동을 할 것이라는 수요자들의 인식이 아쉽다”고 전했다.

상담봉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례를 묻는 질문에 그는 “복합한 중학생이 있었는데 어느날 그 학생이 숙한 반에서 체육시간에 절도 사건이 일어나서 담임 교사에게 오해를 받아 머리카락을 잘랐다”며 “그 학생은 정작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교사가 단지 문 제야란 이유로 믿음을 상실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결국 그 학생과 상담하면서 같이 울었다”면서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는 현재 봉사단체 구성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봉사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모집기간에 지원자 또한 적은 편이라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교육 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하자 그는 “보람 있게 산다는 의식이 중요하다”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노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다는 것만큼 즐거운 것은 없다”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는 덧붙여 “봉사활동을 하는 대상에 따라 노인을



## “참된 봉사는 밝은 사회를 위한 한줄기 희망”

돌볼 때 친어버리를 섬기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돌볼 때는 친자식을 아끼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한 줄기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 무료해질 수 있는 노년의 삶에서 그는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

이지영 기자 polaris@cheju.ac.kr

## 칭찬 릴레이

## 두번째 칭찬 주인공

고소영(관광경영2)

##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요”



지난호 칭찬주인공 한동민 학생이 추천한 두번째 칭찬주인공은 교양봉사동아리 ‘보통사람들’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고소영(관광경영2) 학생이다. 고씨는 “자신을 추천해준 학생에게 감사하다”며 “많이 쑥스럽고 앞으로 진짜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웃음 지으며 말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도내 한 보육원을 방문해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스킵자수, 종이접기, 수화 등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힘든점 없지만 책임감을 갖고 봉사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육원 방문교사를 하면서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보육원은 고아원과 다르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모른다”며 “보육원 아이들은 부모가 있지만 돌봐줄 여건이 되지 않아 시설에 맡겨지는 것이 지겨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간혹 동정 어린 마음에 돈을 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행동은 아이들의 기분을 더욱 상하게 하는 행위라고 한다.

그는 “보육원 활동을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의 친형제·자매 역할을 한다는 마음으로 한다”며 “예전에 ‘원아작품전시대회’가 있었는데 한 원아가 내게 쓴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그를 가족 같은 존재로 느끼고 있으며 그 또한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 좋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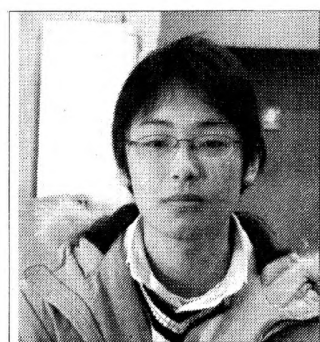
보육원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원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스스로 자립 해야 하는데 재정적 지원이 국가에서 활발히 일어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보육원에 대한 관심도와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길 바란다”면서 “특히 대학생들이 봉사에 대한 희생정신이 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번째 칭찬주인공은 고씨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경상대복사실 직원이다. 레포트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파일이 열리지 않아 고생했었는데 복사실 직원이 3시간 동안 함께 도와줬다고 한다. 고씨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참중헌번 안내고 오히려 걱정해주었다”며 그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지연 기자 tpejy@cheju.ac.kr

## 인터뷰

## “할 일 많은 대학생활 설레요”

수석입학  
문재철(의예과 1) 학생

지난 3월 4일 제주 시청의 한 커 피스에서 2005학년도 입학식에서 신입생 대표로 선서를 했던 문재철(의예과 1)학생을 만났다. 안경을 쓰고 평범한 옷차림의 그는 6년 동안 꾸준히 학교를 다니고 남들과 같

이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여느 신입생들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오전 고등학교 출신인 그에게 어떻게 제주대를 선택하게 됐냐는 질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 아니면 제주대학교 둘 중 하나를 가려고 했는데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은 운이 안 좋았는지 떨어져 제주대학교에 왔다”고 말했다.

제주대의 첫인상이 막연히 ‘크다’라고 말한 그에게 이를 동안 짧긴 하지만 학교생활을 보낸 소감을 물었을 때는 “수업이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소개정도만 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특별히 느낀점도 없다”며 “단지, 공강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 한라홀에 가면

히 앉아있었다”고 답했다.

신입생 대표로 선서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거짓말인줄 알았다”며 “입학식 당일에는 정말 이걸 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 더 컸고, 하고 나서서는 많이 민망했다”고 말했다.

“수험생 생활 때나 지금이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한 그는 “수험 생활 중 수업시간에 졸다가 선생님께 혼났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라고 말했다고 수능시험을 본 후에는 운전면허를 따고, 친구들을 만나는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고 했다.

어떻게 의사라는 직업을 꿈꾸게 됐냐는 질문에 “원래 어릴 적 꿈은

교사였지만 수능 후 부모님과 주위 분들이 의사가 되는 건 어떻겠냐고 권했다”며 “생각해보니 의사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의과과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과과를 나와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냐는 물음에 “아직 이렇게 결정할 수 없겠다”며 “대학교 생활을 하며 이런저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차차 생각해 나가고 싶다. 특히 대학생활 중에 일본 혹은 유럽 쪽으로 여행도 가보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떤 의사이기 보다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대학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다.

고우정 기자 hotw312@cheju.ac.kr

## 행사동정

## 고효율약품탐색법 세미나

제주생물자원을 활용한 신소재개발 핵심기술인 고효율약품탐색법(HTS) 특강이 17일 오후 1시 30분 해양과학대학 신관 교수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특강에는 김성수(한국화학연구소) 연구원이 ‘Chemical library management & HTS for the high throughput put drug lead discovery’에 대해, 이승호(성명대학교) 교수가 ‘Current status in HTS technology : schemes and vital components’를 주제로 강연한다.

## 제주양조산업 세미나

발효기술첨단화연구실에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감귤축하기술센터 강당에서 제주양조사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강연에는 최중욱 경북대 식품공학과 교수가 ‘국내 양조산업의 동향’을, 김한식 초당대 조리과학과 교수가 ‘현대인과 와인’을 주제로 발표한다.

## 생명과학기술센터 세미나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소장 김세재 교수)와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공동으로 오는 17일 오후 1시 제주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에서 세미나를 연다.

권혁우 교수(미국 메릴랜드대학, 제주대 TIC 초빙연구원)가 강사로 나서 ‘How US government supports biotech ventures’와 ‘How salt regulates gene-story of TonEBP transcriptional regulator’에 대해 강연한다.

## 제7기 철학사랑방

철학과(학과장 김현돈 교수)가 ‘철학의 대중화와 대중의 철학화’를 위해 마련한 철학사랑방이 오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제주시 칠성동 북교입구 지하에 위치한 철학카페 이데아에서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3만원의 회비를 내야한다. 문의=철학과사무실(754-2750)

## 신간 도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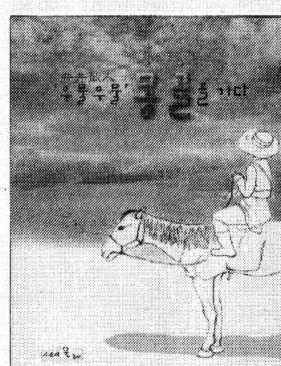


## 無痛文明

모리오카 마사히로 교수 저  
조성문(사회)·이창익(일문) 교수 역

모리오카 마사히로(오사카부립대학 종합학부)교수가 쓰고 이창익(일문)교수가 옮긴 ‘無痛文明’이 발행했다. 이 책에서는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인간사회의 폐단과 그로 인한 변화를 無痛文明의 종류로 나눠 실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문명이 신체의 욕망에 기초한 무통문명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명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런 현상에 대한 여러한 말들은 근접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제1장 고통없는 문명이란 무엇인가, 제2장 무통문명에서의 사상의 조건, 제3장 무통문명, 제4장 암흑 속에서의 자기해체, 제5장 신체의 욕망에서 생명의 욕망으로, 제6장 자연화하는 기술의 합성, 제7장 ‘나의 죽음’과 무통문명, 제8장 스스로 치료하는 무통문명 등 총 8장으로 이뤄져 있다. 모리오카 교수는 책머리에 “현대사회는 끝없는 쾌락속의 불안, 기쁨을 잃은 반복, 출구 없는 미로 속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옮긴이 후기에서 조성문 교수는 “모리오카가 현대 산업문명의 핵심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읽으면서, 새

삼 생명에 대한 관심을 배울 수 있었다”며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에서 받아들여 겪을 때, 비로소 성숙해 가는 사람도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모넨도 출판, 18000원

井井散人  
‘우물우물’ 몽골을 가다

김상조(국문)교수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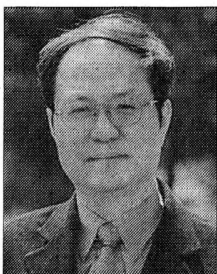
김상조(국문학과)교수가 자신의 몽골 여행기를 책으로 펴냈다. 두 번에 걸쳐 몽골에 다녀온 김 교수는 여행 동안 보고 느낀 것을 간직하기 위해 짧은 일기형식으로 써오던 글들을 모아 지난해 12월 『井井散人 우물우물 몽골을 가다』란 제목의 책으로 발행했다.

이 책은 2부로 구성돼 있으며 1부는 1997년 7월, 2부는 다음해인 1998년 7월에 여행했던 기록을 실었다.

저자는 ‘귀국후’라는 본문내용에서 “예전의 여행기록을 시간이 꽤 지난 지금 수정을 한 부분들이 얼마나 정확할지 조심스럽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바뀐 것은 옛날 그대로 두었으며 그 나름으로 그때의 기록이라고 생각 한다”고 전했다. 시간의 물레 출판, 11000원



무론유설



양길현(윤리교육과) 교수

평화통일의 가능성과 지속성은 쌍방향의 합의에 기초한다. 통일 어느 일방의 운동이나 정책 또는 힘의 논리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방적 통일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 커서 '누구를 위한 통일이고 무엇을 위한 통일' 인지를 의문시하게 된다.

물론 실제의 통일과정에서는 역량의 차이와 정세의 유·불리로 인해 어느 일방의 선도와 추진이 불가

평화공존과 국가연합형 연방제

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방의 선도에 화답하고 보완해 나가는 상대방의 대응이 뒤따를 때 비로소 하나로 통일됨의 정치사회적 의미가 커지고 비용절감의 유용성이 증대될 것이다.

남·북한 통일문제에 있어서 어떤 선도적인 통일정책이든 혹은 남·북한 누군가에 의해서 추진되든, 남·북한 7천만으로부터 호응과 수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책의 실효성이 커지고 통일의 실현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통일정책을 통한 위로부터의 제시와 추진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호응과 수용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어떤 특성의 시점과 국면에서 그 전에는 예상하지 않았거나 간과되어 왔던 요인들의 작용에 힘입어 비로소 남북한 통일이 가

능하게 되는 것이다.

통일정책의 성공은 통일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는 탁월한 방식이나 기회활용에 있기보다는 남북한이 사이좋게 서로 도와 가면서 살아가도록 관계개선과 7000만 한민족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그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다. 그래서 남북한이 사이좋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국가연합의 틀로서 접근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연합형 연방제는 1민족 1국가라는 20세기적 탈식민지 신생 독립국가의 국가주권중심 논리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한다. 한반도-동북아-세계라는 3가지 수준에서 어떻게 평화공영에 기여하고 이를 확대·확성화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21세기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은 더더욱 탈국민국가적 방식의

민족공동체 건설에 대한 지대한 성찰을 요청하고 있다.

국가연합형 연방제 통일정책은 또한 남한이나 북한 중 어느 한쪽의 소멸 내지는 항복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일방적 통일정책은 불가피하게 배제와 적대 그리고 강제를 수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적대적 대결은 상호불신과 체제경쟁을 거치면서 총력안보 태세의 강화와 제로섬 게임적 대결 그리고 무모한 군비경쟁을 낳는데, 분단된 민족을 하나로 합치지는 통일정책이 오히려 민족 간의 적대와 대결을 조장하는 역설 속에서 분단 50여년에 걸친 남북한 적대적 대결의 폐해와 아픈 경험은 통일을 지향하는 적대적 대결보다는 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설정을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만들고 있다.

사설

대학구조 개혁과 과제

우리대학 구조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우선 새로운 시대가 우리대학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함께, 세계의 평화와 안정, 지구환경보호, 개발도상국의 성장지원 등 국제적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이나 문화 등 고도 지식을 필요로 하는 관리·전문·기술에 종사하는 직업인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직업인의 양성에는 해당전문지식은 물론, 종합적 지식습득이 필수 불가결하다. 또한 과학기술이나 학술평화의 발전에 있어서 기업이나 시민과의 연계도 점점 불가피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대학은 개혁의 목표를 새로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제적인 학술연구의 계속적인 추진을 통해 국제적인 학술연구를 젊어지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전문직업인의 양성과 사회인의 재교육을 통해 국립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급증하는 유학생에 대응한 교육 시스템의 확립과 산학연과의 연구 협력과 교류 강화도 절실하다.

우리대학은 1951년의 개교 이래, 50여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제주도의 유일한 국립대학교로서 우수한 인재를 제주사회로 배출하여 왔다.

이같은 원동력으로 오랜 전통을 가진 학부·학과가 있고, 교수나 대학원생이 거기에 소속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전통을 이어오면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올려왔다. 그러나 현재 적지 않은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학구조 개혁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우선 교육 연구 조직의 세분화·개별화로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대의 조류에 대응한 국

제적·첨단적·종합적 연구 및, 학부·학과를 초월한 대담한 협력, 기존의 학부·학과와 대폭적인 재편을 포함하는 재구조화 등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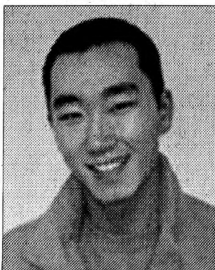
둘째는 국제적·첨단적 학술연구를 젊어지는 차세대 연구자의 양성, 고도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한 고도의 전문직업인의 양성이라고 하는 대학의 역할로부터 보면 현재의 대학원의 교육 체제가 현저하게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원래 우리대학이 학부 중심으로 교육을 해온 것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시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는 학문의 세분화나 고도화가 교육 커리큘럼의 강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 인하여 종합적·기초적 지식이 몸에 익히지 않은 상태로 이수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것도 학생의 학습 의욕의 저하와 수준이 저하되는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넷째로는 대학을 지지하고 있는 사회와의 연계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대학교육에 의한 인재의 육성, 간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연구 성과의 발표 등 대학은 사회와 밀착하여 교류하여 왔지만, 이러한 것과는 별도로 대학은 사회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요청받고 있다.

의학 분야에서는 진로라고 하는 형태로 시민과 깊은 관계,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산학협력 강화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또한 문화 분야에서도 지자체나 시민과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여왔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더 깊어질 것이라는 사회의 요구로 보면 여전히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게다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인의 대학 및 대학원 재입학에 대해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독자기고



부석형 (정치외교 3) 총학생회 정책국장

만물이 소생하는 신록의 계절인 봄을 맞아 상상초월 총학생회는 출범식으로써 그 힘찬 시작을 알린다. 올해 초부터 분주하게 등록금 협상은 진행되었고 각 단과대학 새터 및 간부학교를 방문하다보니 벌써 3월 중순에 이르게 됐다.

작년 이맘때쯤 까지만 하더라도 총학생회에 별 다른 관심이 없던 나였고 학교생활에도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나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총학생회의 일원으로서 열

총학생회에 애정 어린 격려를

정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에 와서야 느끼는 것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나 역시도 그랬었기에 현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학교의 주인은 일만 아니라 학우들이며 이들이 주체성을 갖고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나의 역할이구나 하고 새삼 느끼며 어떤 공약 사항 못지않게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역시 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하면 학우들의 의식 또한 변하기 마련이다. 하루하루 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인 만큼 또한 총학생회 역시 학우들의 변화된 의식 이모저모를 담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껏 이렇게 해왔

으니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고가 아닌 언제나 학우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공약사항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서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작년에 들고 나왔던 사항을 그대로 시행하자라는 생각을 했었다.

현재 일단의 도서관 환경조사는 마친 상태라서 '단계적인 절차만 밟으면 되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었다. 지금 현재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고 나가려고만 했던 것이다. 언제나 학우들의 편에 서서 생각해야 하는 상상초월 총학생회이기 때문에 매일 같이 반성을 하고 또한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설문조사를 통한 학우들의 의견,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최대한 학우들

의 소리 하나하나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도서관 문제뿐만 아닌 상, 하반기에 걸친 모든 사업과 공약사항들을 학우들과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 다짐해본다.

마지막으로 일반 아라 학우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상상초월 총학생회에 관심을 가져주라는 것이다. 뜨거운 질타 역시 괜찮다. 일반 아라 학우 누구나가 총학생회가 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여러 분야총학생회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권의를 추구하는 현시대와는 상반된 나의 견해이지만 스스로의 육체를 괴롭혔으면 한다. 육체적인 고통이 정신적인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언제나 초심의 마음을 갖고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글을 접고자 한다.

돌하르방

‘여성의 날’ 의미 되새겨야

지난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총여학생회(회장 유지혜 정제4)는 교문 앞에서 '생리대 나눠주기' 행사를 벌였다. 생리대를 받아 든 여학생들은 아침 등교시간부터, 그것도 교문 정문에서 이런 행사를 가진 총여학생 측이 다소 생동맞다(?)는 반응이었다.

유연에서 지정한 3월8일 '여성의 날'은 90여년 전 미국 섬유여성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권 쟁취'와 '노동조합 결성,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해 만들어진 날이다.

또한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각종 차별과 이데올로기를 알아보고 여성을 일터와 가정의 주인으로서 인정하며 그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천의지를 북돋겠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날이다. 이런 깊은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학생들의 권익을 내세우고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총여학생회는 정작 '여성의 날'을 선물을 나눠주는 '데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

'여성의 날'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알리고 여성들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는 못할망정 생리대를 골고려 나눠주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그 무성의함이 여학생들을 대표하는 총여학생회가 갖는 지의 실수라고 한다. 여학생을 대표하는 기구라면 적어도 현재 제주대 여학생들이 누리고 있는 복지여건과 환경 등을 놓고 그들의 회포를 풀 수 있는 행사로 이끌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총여학생회측은 14일 있을 출범식을 여성축제 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달력에 뻗히 명시돼있는 3월8일 여성의 날을 뒤로 한채 구지 자신들의 출범식에 여성축제를 포함하겠다고 한 이유는 뭘까,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맞이한 14

일 총여학생회의 출범식은 적잖은 실망을 안겨줬다.

출범식과 함께 여성축제도 겸하겠다는 그들의 계획은 사탕나눠주기 행사와 차치음회, 메이크업 강좌, 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출범식 그 이상, 이하도 아닌 행사가 되고 말았다. 특히 주최측의 사정으로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영화상영의 경우 대중적 작품인 '주홍글씨'와 '여선생, 여제자'가 상영작으로 지정돼 과연 누굴위한 영화상영인지 그 의미조차 모호하게 됐다.

물론 이번 행사를 여성들만의 행사가 아닌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고 싶었다는 총여학생회 측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성축제'는 말 그대로 여성을 위한 축제다. 남성들이 받을 소외감을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참여한 남성들이 더욱더 여성들을 이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 왜 남성이 받을 소외감에 대한 우려로 '여성을 위한 행사'의 의미까지 퇴색시켜 버리는가.

다시한번 말하지만 총여학생회는 여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단지 여성으로만 구성된 보통 자치기구가 아니라 말이다. '여성의 날'을 맞아 그 방법은 다르지만 넓게는 세계적으로, 좁게는 도내에서도 '여성을 위한' 여성의 날 축제가 구성돼 진행됐다. 그런데 정작 '대학'이라는 최고 교육기관의 학생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호들갑을 떨지 못할망정 너무도 태연하게 여성의 날을 넘겨짚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호주제폐지 법안 통과와 함께 찾아온 여성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느라 떠들썩하고 한쪽에서는 생리대를 나눠주느라 분주한 삼국뽀 두 모습을 보며 그들을 믿고 생활하는 한 여대생으로서 마음이 착잡해짐을 느낀다. 김정미 문화부장

독자, 세상을 품다



‘베트남의 아침’ 하노이 시내를 걷다가 일상에 지친 상인의 모습

김현철 (식물자원학과과 3)

기자수첩

등록금인하 헛 공약이었나

지난 15일 37대 총학생회가 출범함에 따라 지난해 총학 선거 이후 다시 이라벌에 '동반자' 노래가 울렸다. '학생들과 동반자가 되고싶다'는 입후보자였던 때와는 달리,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노랫소리가 학생들의 귓가를 울렸다.

앞으로 총학은 학생들과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많은 학생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 이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일반 아라인들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총학이 1년 사업에 진행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총학에 무관심한 학생들의 관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낮은 선거율, 저조한 행사 참여 등으로 미루 봤을 때 최근 몇 년간 캠퍼스 안에서 총학의 위치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왜

학생들은 총학에 대해 무관심한가. 총학과 재학생은 총학이 내놓은 공약이라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이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총학이 학생들과의 약속의 끈을 조금씩 놓으면서 학생들 또한 총학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것이다.

지난 한해 총학생회 출입기자들 하면서 총학과 관련된 행사에는 모두 참가하고, 그들의 공약이 잘 지켜지는지 1년 동안 지켜봤다. 1월 등록금 협상을 시작으로 3월 출범식, 대통령 탄핵 반대 시가행진, 4월 4·3 행사, 5월 대중제, 11월 아라 대중제, 가금씩 수요일에 열렸던 '수요영화제', 일회성으로 끝난 각종 캠페인, 이렇게 그들의 업적(?)은 여기서 끝이다. 혹 이번 총학도 우리에게 이 정도의 기사거리를 쥐어주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매년 같은 공약사항, 연중행사이는 그 전 총학, 더 나아가 전 총학이 학생들에게 공약사항으로 내놓았던다. 이 공약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다.

총학이 말 뿐인 공약을 내세우며 한 표를 요구할 때 마다 선거권을 갖은 학생들은 매년 같은 공약제시에 '이번 총학은 해결하겠지'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매년 선거 기간 때마다 꿈꾸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상상초월'이 당선되고 지난 1월 부터 등록금협상이라는 큰 산을 넘으며 총학의 역할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봤으리라 생각한다. 당초 등록금 15% 이하 인을 요구하며 학생들에게 커다란 꿈을 안기고, 결과적으로 신입생, 재학생 각각 8%, 5%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학생들

에게 내보였으니 이는 총학이 내놓은 비중 있는 공약을 출발하기 전부터 지키지 못한 것이다.

총학은 학생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현실정치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공약 내용았던 후보자는 물론이고 유권자들도 역시 공약한 내용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다반사라고 하지만, 앞으로 제주대에서는 당선자는 공약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 또한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학생회란 학생들이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보다 함께 손잡는 것이다. '동반자'라는 이름 아래 총학과 학생이 손잡고 제주대의 발전을 위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원지애 기자

fate0204@cheju.ac.kr



많은 학생들이 현재 총장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 배경과 그 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총장의 빈자리를 언제 채워 줄 것인가'가 아닌 '왜 공석이 되었느냐'에 대한 논의입니다. 아무쪼록 총학생회 측의 빠른 답변이 있길 바랍니다. D.발견이

자유게시판이 새롭게 바뀌긴 했으나 댓글을 남겼는데도 글이 뜨지 않는 등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겠지만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글을 열람하고 나서 '목록'

을 누르지 않고도 밑으로 리스트들을 나열해 클릭하면 바로 다음 글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더욱 깔끔하고 편리해진 게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D.와우

많은 동아리들이 학생들로 가장 붐비는 점심시간, 학생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시간대에 공연을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식권판매대 앞에서부터 식당입구까지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 때문에 발을 내디딜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각 동아리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D.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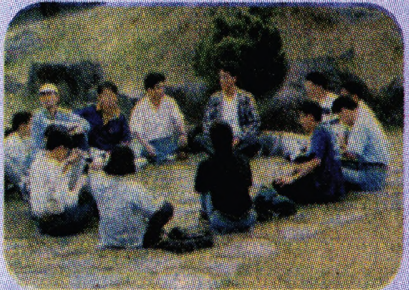


## 대학문화를 살리자

1. 대학문화의 어제 (1980년대 대학문화)

2. 대학문화의 오늘 (1990~오늘날 대학문화)

3. 대학문화의 내일(좌담회)



## 대학공동체의 붕괴는 곧 대학문화의 부재

오늘날의 대학을 일컬어 사람들은 '대학은 있지만 대학문화는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의 기준이 되는 준거점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그 화살은 바로 1980년대를 향하고 있다.

최루탄과 화염병으로 어수선했던 80년대의 대학로, 그 곳에서 '대학문화'라고 일컬어지던 요소들은 형성됐으며 그것은 절대 깨뜨릴 수 없는 신화적 존재로 자리잡게 됐다.

그러다 1993년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학문화의 화두는 '사회변혁'에서 '대학자치권' 확보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집단의 목소리가 아닌 개인의 목소리가 중심이 됐던 90년대 후반, 이전보다 좀 더 자유로워진 대학문화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 대학공동체 문화의 붕괴

이러한 대학문화의 변화는 대학구성원 개인의 창의성을 강조해 개성을 살릴 수 있게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학문화의 변화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정당한 기준점을 상실하면서 공동체 해체의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인터넷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문제들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만남을 통해 '네티즌(Netizen)'이란 세력의 의해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사회전반의 문제를 주도했던 대학생들은 더 이상 길거리로 나가 집회를 벌이고 토론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결국 그들은 사회문제에 맞서는 주체세력이 아닌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는 소비세력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대학공동체 문화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대학 내부의 변화이유에 대해 강호진(97학년도 총학생회장·제민일보 기자)씨는 '대학공동체의 꽃이었던 동아리의 쇠퇴

와 학부제의 영향'을 지적했다.

그는 "대학 공동체의 꽃이었던 동아리 조직의 경우 90년대 중반까지 명맥을 유지했던 소위 진보적 동아리들은 간판조차 사라져버린지 오래"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학부제가 도입되면서 대학 1학년의 경우 학과에 대한 소속감이 사라지게 됐고 그 결과 체육대회나 MT 등의 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이는 대학 내 선후배간의 연대가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학부제는 학부단위 속에서 취업준비 등이 좋은 과로 가기 위한 학생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학생회 체제의 붕괴뿐만 아니라 일부 학과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며 "이는 기존 '진리의 전당'이던 대학이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인재양성 기관으로 변모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대학 내적으로도 급격한 변화를 맞으며 대학공동체 문화는 해체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80년대 대학문화를 대표했던 시위·토론 문화는 자연스레 그 의미를 잃게 됐다.

제주대의 경우 94년까지만 하더라도 4·3항쟁 집회 때 1000여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모여 집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이 되자 참가자들은 500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2000년 이후에는 10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을 정도로 그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4·3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에 학생들은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와 같은 공통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토론과 논의조차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사회변화에 따른 대학문화의 변화는 어쩌면 당연한 순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90년대 초반,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사회 안에서 대학은 그에 알맞은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강호진씨는 "학생 자치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

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대표들이 학생들의 생활, 학문적 요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논의를 하면서도 실제 학회 활동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대학사회의 주도적 이슈로 이어가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 결과 학생들은 학생회를 외면했고 학생회 또한 대학문화의 변화를 주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오늘날 대학문화의 부재는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급격한 변화가 그 전 대학문화와 맞물려 탄력 있게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특색 있는 대학문화 생성

살 자리를 찾기 못한 채 표류해온 대학문화는 20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대학안에는 이미 다양한 가치관으로 결합된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문화와 대중문화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고 말았다.

대학구성원들은 눈앞에 보이는 대중문화를 소비하기에만 정신이 팔렸지,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문화를 만드는 것에는 인색해져 버렸다.

그 결과 제주대만의 특색 있는 문화는 부재했고 이는 '특색 없는 대중제'와 '특색 없는 동아리'를 낳았다.

92년 총학생회장 윤철수(39·미디어제주 편집국장)는 "과거 대중제는 많은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화포를 쏘는 모두의 축제였지만 현재의 대중제는 그런 개념이 사라진 것 같다"며 "무엇보다도 제주대만의 컨셉을 정해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10년 넘게 이어온 대학문화의 붕괴와 단절은 어느 누군가의 노력만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하부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제주대만의 특색이 담긴 대학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당국과 학생자치기구,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소모적이고 일회적인 문화가 아닌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문화를 향한 논의와 투자 역시 뒷받침 돼야 한다.

김정미 기자 jung@cheju.ac

동아리  
탐방

사진 동아리  
J.P.C.



## "사진은 우연이 아닌 노력의 결과물"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순간이 있다. '내 인생의 명장면'을 멋진 사진으로 담아내는 이들이 이곳에 모였다. 바로 사진 동아리 J.P.C.(Cheju National University Photo Club, 회장 조해미·가정관리2)다. J.P.C.는 사진을 좋아하고 취미활동으로 삼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동아리로 1979년 3월 10일 창립했으며 현재 3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학기 중 매주 일요일에는 야외로 나가 사진을 찍는 것을 '출사'라 하는데 최근 신·후배가 함께 '연합출사'를 다녀왔다고 한다. 그곳에서 회원들은 사진에 대한 기술을 공유하고 작품을 교환하기도 한다.

특별한 사진 기술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수많은 연습을 거듭해야만 작품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서로 사진을 통해 '전통도도'와 '정서의 교류'를 중요시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신입생들은 카메라 스티디를 받게 되는데 누구나 처음시작이 서툴 듯 여백조절도 실패하고 셔터속도 조절도 실패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진정한 자신만의 스타일이 나온다.

2학년 회원들이 처음 동아리에 들어왔을 때는 실수도 많았고 에피소드도 많았다고 한다. 동아리방 내에 있는 '암실'에서 작업을 할 때면 항상 옷의 색이 바뀌어 암실을 나오거나 필름을 통째로 날

려버려 울상을 지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 이유는 '악품조절' 실패에 있다. 사진을 현상할 때 사용하는 약품이 비율이 맞지 않으면 필름현상이 되질 않고 옷에 붙으면 색이 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수를 많이 한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처럼 회원들은 "수많은 NG 끝에 얻는 멋진 한 컷이 전시회에서 빛을 발할 때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 밀려온다"고 한다.

그중, 순간포착을 통한 작품이 탄생하기도 하는데 순간포착은 말 그대로 그 순간을 찍는 것을 말한다. 회원들은 "사진을 기다려서 찍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사물에 대한 관심과 우연의 일치가 적절히 배합돼야만 가능하다"며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것을 이룰 때 느낀다"고 말했다.

J.P.C.회장 조해미 학생은 "우리는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며 "앞으로 후배들에게 친근한 마음으로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오는 4월 14일에는 2학년들의 작품사진들을 모아 전시하는 '신인전'이 있다. 앞으로 이들의 렌즈에 담긴 세상이 어떨지 궁금하다. 수많은 추억과 멋진 명 장면으로 가득할 기대해 본다

조지연 기자 jpegy@cheju.ac

## 제주대학교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에 신청한 5개 과제가 전부 선정됨으로써 전국 2위 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한편, 올해부터 매년 76억5천만원씩 앞으로 5년간 총 382억 2천여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금 대부분이 장학금과 해외연수, 그리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어학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다'는 꿈을, 국립 제주대학교가 앞장서서 실현 하겠습니다.

### ※ 5개 누리(NURI)사업단이 1년간 학생들을 위해 펼치는 지원내용

	장학금	해외연수	국내연수 실습	자격증 취득	외국어 교육	기타
아열대생물산업 및 친환경 농업생명산업 인력양성사업	676,200,000	156,450,000	35,000,000	24,680,000	13,440,000	332,200,000
첨단관광 정보시스템 인력양성사업	280,000,000		57,000,000	30,000,000	55,300,000	570,000,000
친환경해양산업 뉴프런 티어 전문인력 양성사업 (BK21 사업단)	134,600,000	71,000,000	24,000,000	34,000,000	16,000,000	747,500,000
청정에너지 특화 인력 양성사업	598,007,000	200,000,000	25,000,000	130,000,000	27,000,000	
청정에너지 특화 인력 양성사업	326,500,000	93,000,000	54,000,000	19,200,000	27,000,000	49,000,000
제주국제자유도시 법무 서비스 인력양성사업	90,000,000	108,000,000	12,000,000		54,000,000	25,800,000



### ■ 교육인적자원부의 2003학년도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대학 특성화 부문 '최우수'  
대학경영 및 재정영역 '우수'

발전전략 및 비전영역 '우수'  
사범대학 '종합우수' 평가

### ■ 제 39회 공인회계사 시험(9월9일 발표)에 9명이 합격했습니다.

고영준, 강석희, 조진용 (이상 경영학과)  
김봉현, 고형선, 고영보, 김현수, 진현우, 강경환 (이상 회계학과)

지금까지 제주대학교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제주대학교 대학사 자료수집 합니다.

종이책 / 간행물, 팸플릿, 학위증, 각종 신문증, 상장증  
사진 및 미디어 자료 / 앨범, 각종 행사 및 활동사진, 컴퓨터사진, 필름 등  
기념품 및 비품 / 마크(교표), 실례, 문진, 행사기념품, 패들렛, 배지 등  
문의 : 제주대학교 총무과(TEL 754-2073)